

# 언론에 비친 스페인 내란 직후 생필품에 관하여

권미란\*

## I. 서론

20세기초 스페인은 산업화, 도시화, 민주주의화등의 변화로 갈등을 겪으면서 1930년대는 정치적 이념의 대결이 스페인 내란(1936-1939)을 통해 벌어진 시기였다면 그 이후 1940년대의 스페인은 내란의 결과가 남겨놓은 빈곤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다.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1939년 4월 1일 전쟁종식을 선포하며 일인 독재체계를 구축하면서 반대저항세력은 스페인 내부에는 발을 붙일 자리가 없게 되었다. 프랑코는 40여년의 장기집권을 통해 스페인 국민들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활동영역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며, 전체주의를 상징하는 새로운 국가건설에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는 내란기간 동안 임시수도로 설정한 Burgos(부르고스)에서 국가방위 위원회의 지휘권을 맡으며,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한 손아귀에 넣었던 것이다. 이미 수차례의 시도끝에 민중들의 저항을 물리치며 수도 마드리드를 함락한 정부 반란군의 공격이 절정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스페인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느끼며, 집요한 추적과 두려운 보복 등의 전쟁 승리자들의 심리적 압박속에서 전쟁복구가 빠르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는, 아니 고달픈 삶을 마감하고자 하는 바람을 갖고 새로운 출발을 기원하는 1940

---

\*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교수

년대를 보냈던 것이다.

전후 스페인 언론들은 일제히 프랑코 총통의 새로운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을 기대해 보며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섰다. 비참한 전쟁폐허의 소식보다는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순수한 국민정신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을 쏟으며 이상적인 문구의 캠페인을 만들며 마스크를 통해 선전에 몰두했다. 그러나 이처럼 미사어귀가 담긴 소식과 반대로 국가 절반은 전쟁폐배자로서 가족 일부가 국외 추방되었거나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처형 또는 투옥되었고, 포로수용소에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프랑코정권 속에서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만 보일 뿐이었다. 이미 30여만명의 시민들이 외국행을 택하여 프랑스로 도주하여 포로수용소에서 보호받기를 희망했고, 그들 중 일부는 앞으로 다가올 제 2차 세계대전동안 과시즘에 대항하기 위해 직접 전쟁참여를 원했다.<sup>1)</sup>

본고는 스페인 내란 직후 언론에 비쳐지는 스페인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초적인 생활여건을 조사해 봄으로서, 스페인 현대 민주주의 이면에 숨어있었던 프랑코 체제속에서 전개된 스페인 국민들의 어두웠던 생활의 한 단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II. 생필품 현황 : 배급제 실시

1939년 4월1일 시민전쟁의 승리자인 국민전선은 전쟁의 종결을 선포하며 새로운 생활의 출발을 축하하는 분위기속에서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건설에 함께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내 보냈다. 내란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국가를 생산과 수출로 일으켜 번영과 희망속에서 새시대를 열고자 했다. 그러나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는 뒤로 한 채, 개인의 독재와 국제적인 고

---

1) 1940년 스페인 강방의 정치포로는 30여 만명에 다다르고 있었는데 그들중 7천여 명의 직업은 선생님이었다.

림으로 인해 국민들은 여전히 궁핍한 삶을 지속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인명적 피해는 물론이고, 25만 가구의 손실을 포함하여 전국적인 외형적 손실은 국민소득 수준을 28.3%나 떨어뜨리며 정부가 채택한 정책(봉급 통제, 농업 반개혁화등)으로 인해 국민소득 분배에 있어서 불균등화를 초래하였다.<sup>2)</sup>

전쟁의 결과로 1940년대의 스페인경제는 장기적인 침체에 돌입했으며, 1950년대 말에 가서야 경제회복기에 들어설 수가 있었던 것이다. 전후에 이루어진 일상생활은 국민들이 피할 수 없는 ‘제2의 전쟁’으로 전국적으로 쌀, 감자, 채소, 커피, 고기등의 식량부족 현상을 비롯하여 석탄, 종이, 기름등 모든 종류의 물품들의 공급부족을 알리는 메시지들이 신문들의 많은 지면을 메꾸었다. 1939년 4월 14일 스페인정부는 필수품의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배급통장(cartilla de racionamiento)을 만들었다. 초기에는 한 가구당 통장을 발급했으나 위조하는 사례가 발견되자 점차 개인 한사람마다 통장을 만들었다<sup>3)</sup>, 1급통장은 연간 일정한 소득금액을 초과되는 자에게, 2급 통장은 연간 소득금액 평균을 유지하는 자에게, 3급 통장은 최저소득을 유지하는 빈민층과 서민층에게 발부되었다. 이렇게 통장의 등급이 정해졌지만, 사실상 1급, 2급에 해당되는 국민들의 숫자는 매우 적었다. 예를 들어, 1941년 초창기에는 검은색 빵의 하루 배급량은 1급 통장을 소지한 자에게는 80g, 2급 통장 소유주에게는 120g, 3급 통장의 사람에게는 175g의 빵이 배급되었다. 특히 2살 미만의 유아가 있는 가정에는 지방마다 육아와 유아건강기관 (Servicios Provinciales de Puericultura e Higiene Infantil)에서 발급한 카드를 제시하면 우유구입과 매달 500g의 설탕배급이 허락되었다.<sup>4)</sup>

한 일간지 <마드리드>는 생필품 배급제도에 관한 소식을 다음과 같이

2) Ramon Tamames(1977), La Republica. La era de Franco, Sexta edicion, Madrid, Alianza, p.327.

3) 이 제도는 쿠폰제로 전환되었다.

4) ABC, 1941년 2월 6일 p.6.

더습을 기대해 보며 추종하는 세력을 만들어 내는데 앞장서며 비참한 전한다.<sup>5)</sup>

“국민에게 정상적인 공급을 확보하고 웃돈 거래와 허위로 이루어지는 상품거래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급과 운송 총괄위원회(Comisaria General de Abastecimiento y Transportes, 일명 C.G.A.T라 명칭함)의 제안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식량품의 배급제도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C.G.A.T.는 1939년 3월 10일부터 식료품의 배급을 주관할 목표를 갖고 창설된 정부의 한 부서로서 국민들에게 보급할 물량을 확보하여 최소의 소비자 가격으로 공정히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군대의 물자조달, 무역거래조정, 통계상 숫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정해진 물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가격을 정착시켜 배급을 정착화 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개인의 영양을 위하여 대치될 수 있는 물품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이 기관이 통제하는 물품에는 곡류, 야채, 감자와 같은 뿌리과 식물, 과일, 빵, 고기, 생선, 조류, 계란, 우유, 기름, 커피, 과자등 주로 시민들에게 생필품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중 외부에서 판매와 구입이 가능한 품목이고, 우유, 생선, 해산물, 신선한 야채, 말린과일, 조미료, 구버섯등이 정해졌다. 그리고 정부는 식료품, 의료품, 직물류, 의류, 신발, 양초, 비누등 품목을 기본 소비품목으로 정하였다. 가격에 있어서도 정부는 지역에 따라 밀가루 가격과 빵의 판매가격을 정하였다. 마드리드의 경우에는 가족용 규격의 1,600g의 순수한 밀가루빵을 1,20pts.에 판매하며, 800g은 0,60pts., 400g은 0,35pts.에 팔았지만 밀가루가 아닌 성분인 섞인 빵은 160g에 0,20pts., 80g은 0,10pts., 32g은 0,05pts.에 판매되었다.<sup>6)</sup>

C.G.A.T.가 배급량을 설정하고 엄격한 통제를 시작하자, 이에 관해 MADRID 일간지의 컬럼니스트(Julio Romano)는 기고문을 통해 배급제

---

5) Madrid, 1939년 5월 15일. p.1.

6) ABC, 1939년 7월 10일, p.8.

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독자들을 위로했는데 그 속에서 이 시대의 시민들의 상당히 고달픈 일상사가 엿볼 수가 있다.<sup>7)</sup> 1940년에 돌입해서도 물자 품귀현상을 지속해서 느낄 수 있는 가운데 흡연자들에게는 담배 배급카드가 만들어져 담배공급 역시 통제되어 있었고, 7월에는 모든 신문사들이 2장 이상을 넘기지 않는 신문을 발행하여 국민들의 알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사례까지 나오게 되었다.

밀가루 품귀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형제국가로 생각하는 아르헨티나의 스페인에 대한 밀 원조는 국민들에게 잠시나마 다소 위안을 안겨 주었지만, 아르헨티나와 외교적 마찰을 빚고있는 영국이 스페인에 대한 식료품 수출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국민들의 영양실조현상까지 우려하는 소리가 많았다.<sup>8)</sup> 이에 관해 정부는 원활한 식품공급을 위해 영국과 곡물수입에 관한 재협상을 추진하며 영국연방에 속하는 캐나다로부터 밀을 수입하는데 합의를 도출해 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스페인을 위해 캐나다 밀, 곧 15,000톤이 도착된다” 라는 타이틀로 언론에서는 대서 특필로 다루어졌다.

### III. 영양 평가

스페인 정부는 국가정책을 생필품공급을 원활히하며 균등한 공급을 위해 통제하는데 주력하지만 물품운송에 있어서 일부 권력이 남용되어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물품운송에 있어서 일부 품목에는 공급 안내를 상세히 알리는 공문이 나오기도 하였다.<sup>9)</sup>

베이컨 : 공급 안내와 위생안내

7) Madrid, 1939년 11월 24일, p.4.

8) Rafael Abella, Por de imperio hacia Dios : Cronica de una Posguerra, Barcelona, Planeta,, p.71

9) Rafael Abella, Op. Cit. p.68.

설탕 : 공급 안내와 지방 접경지역의 세관안내, 지방에서의 공급안내

기름 : 공급안내와 올리브 노조안내

조리콩 (garbanzos) : 공급안내와 밀가루 국내 공급안내

완두콩 (alubias) : 공급안내와 밀가루 국내 공급안내

일반콩 (almortas) : 공급안내와 밀가루 국내 공급안내

그러나 정부의 주도로 공급되는 식료품은 개인이 하루에 움직이기에 필요한 열량에 미달되며 상당한 영양분이 결핍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 주민들은 부족한 식품을 수차례 암시장의 뒷거래를 통해 구입하기를 원했다.

Pedro Blanco Grande 박사는 통장을 통해 구입되는 식품들의 영양 가치를 다음과 같이 조사해 보았다.<sup>10)</sup>

식품명	무게	단백질	지방	당분	열량(Kcal)
고기	9.01	1,792	0,702	0,036	14,05
베이컨	0,2	0,018	0,156	-	1,540
버터	2,76	0,010	2,310	0,022	21,660
치즈	1,3	0,340	0,438	-	5,317
대구	0,8	0,100	0,0024	-	0,896
생선류(Jurel)	0,6	0,118	0,011	-	0,594
	14,67	2,486	3,6194	0,058	44,062

10) Rafael Abella, Dp. Cit. p.122.에서 재인용

식품명	무게	단백질	지방	당분	열량(Kcal)
기름	23,0	-	22,862	0,046	212,75
쌀	12,22	0,965	0,611	0,50	43,503
조리콩 (garbanzos)	12,17	1,88	-	5,48	39,309
강낭콩	3,4	0,873	0,055	1,608	10,710
렌즈콩 (lenteja)	0,8	0,208	0,0152	0,42	2,278
감자	54,29	1,085	-	10,83	48,861
고구마	16,16	0,323	-	3,232	15,514
수프	0,2	0,0186	0,0012	0,148	0,7
감자가루 (pure)	0,2	0,0186	0,0012	0,148	0,72
설탕	6,06	-	-	5,999	6,787
뚜론 (X-mas 용)	0,22	0,028	0,0532	0,094	0,971
초코렛	0,5	0,275	0,10	0,35	2,5
커피	1,3	0,158	0,156	0,502	4,50874
과자	0,2	0,01278	-	0,15874	0,
빵 (2등급배급분)	120,00	9,60	0,6	60,0	294,0
	250,70	15,43878	24,4548	98,61874	683,11174

그러나 이에 대해 영국 보건사회부의 영양평가위원회에서 밝히는 바에 따르면 정상적인 식사에는 단백질과 지방질 섭취가 100g씩이 되어야 하며, 탄수화물이 400g, 열량은 3000칼로리가 되어야 했다. 이런 차이를 지표로 나타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sup>11)</sup>

11) Rafael Abella Op. Cit. p.123.

<스페인 사람이 섭취하는 1일분 음식>

	섭취량	최저 기본 섭취량	결핍량
단백질	55,40	100	44,60
지방	38,50	100	-
탄수화물	135,17	400	264,83
열량	1002	3000	

즉, 주민들의 배급제로 구입한 식품과 암거래로 통한 구입으로 다음과 같은 영양가치를 얻어낼 수 있었다.

식품	정량	단백질	지방	당분	열량(Kcal)
배급통장으로구입한식품	265,37	17,92478	28,0742	97,94374	727,173
자유거래로구입한 식품	669,63	36,54498	10,759634	34,900928	331,7353
	935,00	54,46976	38,833834	132,844668	1058,9083

앞서 살펴본 영양비교표를 분석하면 전쟁이후 국민들의 대체적인 영양부족현상으로 신생아들의 사망이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41년 1000명당 151명의 신생아들의 사망은 그 시대의 영양 실태가 얼마나 심각했던가를 보여주고 있다.

#### IV. 연료 현황

언론들은 주민들의 영양 못지않게 생필품중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심각한 문제는 연료라고 지적한다. 1940년도 초반에 10월 파동이라고 불리

우는 연료 위기설이 나돌 정도로 연료부족 현상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 스페인정부는 1940년 7월 27일 관보(Boletín Oficial del Estado)를 통해 탄산액체연료사용과 자동차통행을 통제하기위해 탄산수소 액체관리소를 설치함을 알렸다. 이런 연료소비절제를 위해 가스미터 사용을 권장하며 휘발유 할당량을 절반으로 감축시키며 개인차량의 통제를 억제시켰다.<sup>12)</sup> 9월에는 토요일 오후2시부터 월요일 2시까지 관광용 차량운행을 금지시킨다는 법안이 통과되자 Mariano Garcia Cortes는 “지금은 마드리드에서 정착할수 없다” 라는 글에서 석탄부족으로 인해 1942년 겨울의 난방문제를 설명하며 연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음을 밝혔다.<sup>13)</sup>

1942년에 들어서 전기사용 억제정책이 강요되자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계속되었다. Madrid에서는 일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매일 6시간씩 전기공급이 끊어졌다. 게다가 수력발전소를 가동할 강수량이 부족하고 화력발전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료부족은 전기공급을 원만히 진행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또한 수도물 공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때때로 제한되었다.

이에 대해 한 일간지 사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sup>14)</sup>

“..... 1941년에는 국가는 재건축에 신경쓰다가 모든차량에 겨우 262,949,576 리터의 기름을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공급한 휘발유에서 감소된 거의 1억리터는 우리가 느끼는 결핍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sup>15)</sup> 이처럼 전후 복구를 이룩하지 못한 시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외부여건들로 인해 스페인 일상생활이 정상적인 궤도에 돌입할 수가 없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13) 연료배급의 쿠폰제를 실시하여 간신히 자동차통행이 가능했는지라도 탄성고무 생산부족으로 자동차의 타이어 제작이 더욱 심각했다.

13) Madrid, 1942년 1월 24일 p.4.

14) Madrid, 1942년 1월 24일, p.4.

15) Madrid, 1942년 1월 24일, p.4.

## V. 암 시장

일상생활을 취급하면서 전후에 떠오른 중요한 거래는 암 시장에서 이루어졌다. 이 암시장은 정부측이 제정한 배급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기에 나타나 결과인 것이다. 즉, 물자공급이 배급제도인 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와 공급사이 조정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 암시장이란 병폐현상이 생긴 것이다. 스페인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위해 가격통제 최고세무소(Fiscalia Superior de Tasas)를 설치하였다. 언론은 이에 대해 “정부는 생필품 분배를 위해 법령을 제정한다” 또는 “투기꾼들과 물품 독점업자들에게 엄격한 제재를 가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암시장거래가 불법임을 강조하였다. 지나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제품수급에 차질을 빚게하는 투기꾼들과 독점업자들을 질타하는 캠페인을 언급하였다.<sup>16)</sup>

“세비아와 마드리드 급행열차안에서 허가증을 소지하지않는자가 누런콩(Garbanzo)50kg과 빵 581 kg이 담겨있는 14개 보따리와 기름 한박스를 운반하여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같은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생활필수품이 공급부족으로 암시장에서 빵, 고기, 밀가루, 가축, 강등 비밀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마치 가격통제 최고세무소의 업무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한 국가의 경제정책을 이끌어가는 공공기관이 배급할당량, 안내지침, 허가증, 자격증, 증명서 등을 발부하는동안 정책과 현실의 불협화음으로 부정부패, 암시장에서 만들어진 신흥부자 출현 등이 동반된 것이다. 암거래자들은 부부동반 외출을 즐기며, 그들의 부인들은 최신 유행하는 모자를 선보인다. 그들은 금전으로 모든 종류의 삶과 영향력, 명예를 소유할 수있다고 생각했다.<sup>17)</sup>

16) Madrid, 1939 년 11월 24일 p.6.

17) Rafael Abella Op. Cit. p.83.

이에 대해 1940년 1월 1일 Francisco Franco 총통은 국민에 대한 신년 새해인사에서 정부는 암거래를 걱정하며 타인의 불쌍한 처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파렴치한 상인들과 생산업자들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공정가격의 변동에 관한 법을 제정하며 만일 공정가격을 위반할시 1000 pts.에서 50만 pts의 벌금을 부과시키며, 구입자, 위장한자, 공범들에게도 같은 법을 적용시키며 그 사실을 고발한 자들에게는 부과된 세금의 40 %가 주어 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유에서, 가게운영시간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5000 pts, 폐점 이후 음식재공은 2500 pts 부과, 공정가격 법률위반으로 14개 점포가 3달 동안 문을 닫는다 등등과 같은 소식을 듣는 것은 매일 빈번히 일어났다. 40년대에 정부의 물가공급은 갈수록 열악해지자 시민들은 어려운시기에 생존수단의 방법으로 암시장을 통해 식품을 구입해야 했지만, 이 어두운 시대에는 시민들에게는 2가지 종류의 삶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행운을 거머진 자인 투기꾼들의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생존하기 마저 힘들어하는 가난한 자의 삶이다. 정부는 무조건 암시장에서 거래하는 투기꾼들에게 벌금 부과를 내리고, 감옥소에 투옥 시킨다는지, 강제노역 집행등의 방법을 채택하는 것만이 정상적인 거래와 상거래 질서를 잡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41년 11월에는 사기와 투기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영수증없이 물품판매, 허위가격 또는 가격 미결정, 함량미달들을 단속하였다. 가격과 공급 분야에서 위법행위는 사회의 자연스러운 부조리로서 인정하지만 그것은 그시대가 필요로 인해 파생된 시대적, 사회적 병폐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 VI. 결 론

프랑코의 독재시기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았다면 아마도 시민내란직

후 경제적, 사회적 혼란과 혼돈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파괴된 도시와 농촌들의 복구에 전력 투자를 해야했던 프랑코의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과 맞물리면서 외부로부터의 도움은 커녕 퇴진 압력까지 받았다. 그러나 내란의 승리자측은 양보와 화합이라는 슬로건 대신에 모든 행정과 편리도모를 승리자를 위한 체제로 구축이면서 건설적인 애국주의와 이념적 단합을 부르짖었다.

스페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동요를 막기위해 고용주가 자유롭게 노동자들을 사퇴를 시키지 못하는 법안을 만들며 유급휴가, 일요일 휴식제, 가족보조금제등 법으로서 제정하여 사회질서를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전후 점차 늘어나는 인구들을 정상적으로 식량공급하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생필품부족 현상으로 공급과 수요의 일치시키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은 점차 불안감을 느껴야 했다. 정부의 감시 체제속에서 통장을 통한 식품 배급제는 1가구당에서 1인당 또는 쿠폰제로 변동하는 상황에 맞추려 노력하였고, 물품의 정상적인 배급위해 공급과 운송 총괄 위원회(C.G.A.T)까지 설치하였다.

또한, 국가정책이 주민들의 식생활을 통제하여 균등한 공급을 안내하기로 하였지만 물품운송과 배급에 있어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사회에 부작용이 생기면서 암시장이 활성화 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생존 전략을 위해 주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암시장의 웃돈거래를 하면서도 자신들의 영양결핍까지 우려해야하는 지경에 다다른 것은 국가가 전후에 사회여건을 생산하는 측면보다는 소비와 외국원조를 기대하며, 기초생활유지에 주력하였고, 프랑코 정권이 외부에서 도움을 청할수 있는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여한 상황이기에 스스로 자급자족해야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전후에 스페인 주민들이 피부로 느껴야만 했던 경제적, 사회적 현실을 살펴봄으로서 언론에 비추어진 그 시대상을 재조명해 보았다.

## 참고문헌

- Abella Bermejo, Rafael(1978), Por el Imperio hacia Dios: Cronica de una Posguerra(1939-1955), Barcelona, Planeta.
- Biescas, Jose Antonio(1980), Espana bajo la dictadura franquista(1939-1975), Barcelona, Labor.
- Carr, Raymond(1979), Espana de la dictadura a la democracia, Barcelona, Planeta.
- Diaz, Elias(1978), Pensamiento espanol~ 1939-1973, Madrid, Cuadernos para el dialogo.
- Diaz-Plaja, Fernando(1970), La posguerra espanola en sus documentos, Barcelona, Plaza y Janes.
- Direccion General del Instituto Geografico y Estadistico e Instituto Nacional de Estadistica(1975), Estadisticas basicas de Espana 1900-1970, Madrid, Fondo para la Investigacion Economica y Social de la Confederacion Espanola de Cajas de Ahorros.
- Garcia-Nieto, Maria del Carmen(1975), La Espana de Franco, 1939-1973, Bases Documentales de la Espana Contemporanea, Vol.XI.,Madrid, Guadiana.
- Heller, Agnes(1977), Sociologia de la vida cotidiana, Barcelona, Peninsula.
- Hills, George(1978), Franco, el hombre y su nacion, Madrid, Libreria Ed. San Martin.
- Moya, Carlos(1975), El poder economico en Espana(1939-1970), Madrid, Tucar.
- Tamames, Ramon(1977), La Republica. La era de Franco, Sexta edicion, Madrid, Alianza.
- Vizcaino Casa, Fernando(1972), Contando los cuarenta, Madrid, Edicion del Autor.

14 이베로아메리카 제5집

<신 문>

A.B.C.

Arriba

Boletín Oficial del Estado

Madrid

Informaciones

YA